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 수립

장수군, 2월 말부터 고위험 보건의료 종사자·집단시설 노인 등 무료 접종

장수군이 올해 안에 의료기관 종사자와 역학조사 인력, 노인 등을 시작으로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다.

장수군은 2월 말 고위험 보건의료 종사자, 집단시설 노인 등을 시작으로, 총 1만9,792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입소자와 종사자 349여명과 코로나19 환자 치료 기관 종사자·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역학조사 인력과 구급대원 등 1차 대응 요원, 정신요양·재활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등을 포함한다.

오는 3~9월까지 2차 접종 대상자는 ▲의료기관 종사자 ▲집단시설 종사자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 ▲

교육·보육시설 종사자 ▲군인·소방·경찰 ▲50~64세 성인 등 1만 3,638명이다.

3차에는 만 18세 이상 성인 등 6,154명에 대해 순차적으로 접종한다.

이를 위해 장수군은 정부의 백신 공급 계획에 맞춰 화이자와 모더나 등 접종에 필요한 백신 물량을 순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군은 한누리전당에 접종센터를 구축하고 의료진 등 보건의료 인력, 행정 인력을 구성해 분기별 우선순위에 따라 신청을 받아 접종한다.

접종기간 동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읍·면별 접종 셔틀 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거동이 불편해 방문 접종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서는 보건소별

로 현장 방문 접종팀을 가동할 예정이다.

장수군은 인력 운영 등 세부 실행 계획을 2월 중 수립하고, 같은 달 말 예방접종에 본격 돌입할 계획이다.

장영수 군수는 "코로나19 입시예방 접종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안전한 예방접종 실시로 집단면역 확보 및 지역 사회 전파를 차단할 계획"이라며 "과학적 근거 기반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접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백신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개개인의 방역 수칙 이행이 가장 중요한 만큼 주민들 스스로 철저한 개인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나선다

특례보증 상담·카드수수료·온라인마케팅 지원사업 등 추진

무주군이 새해를 맞아 무주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원책이 눈길을 끌고 있다.

오는 5일부터 군청 민원봉사과 2층에 마련된 전북신용보증재단 무주출장소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상담을 펼친다. 상담은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다.

앞서 군이 지난 1월 8일 전북신용재단, 무주반딧불 신탁, 무주새마을금고, 실천새마을금고, 실천신탁, 신안성신협과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무주군에서 3개월 이상 사업체를 갖

고 있는 신용 3등급 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보증을 맡게 되며, 업소 당 최대 3,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또는 거치 기간 없이 5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이며, 무주군에서 5%이내의 이자를 지원한다.

특히 당초 NH농협은행 무주군지부와, 전북은행 무주지점 2곳 금융기관에서만 대출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군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폭을 넓히기 위해 추가로 5곳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모두 7개 금융기관으로 확대한 점도 주목을 끈다.

이밖에 무주군이 1월부터 관내 연매

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정책도 펼친다.

노란우산공제회 신규 가입자에게 가입일로부터 1년간 매월 부금을 납입할 때 마다 1만원씩 최대 12만원을 지원(1666-9988)한다.

오는 6월 이후부터 지원될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경우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8%(최대 50만원)를 지원, 카드수수료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책도 마련한다. 관내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올해 7월 이후부터 지원될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지원사업도 눈에 띈다. 무주군에 주소를 2년 이상 두고 1년 이상 사업을 해 온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인터넷 포털 또는 소셜 마케팅 등 온라인 마케팅 활동에 소요된 비용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용담호 수질자율관리 체제 적극 추진

진안군은 1일 전라북도 도민 70% 및 충청도 일부 주민이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담호를 민관이 협력하여 수질자율관리 체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용담호는 2005년 전라북도-진안군-수자원공사 간 협약을 맺고 자율관리 체제로 16년째 유지관리하고 있다.

올해도 4개 영역, 9개 분야 42개 사업 29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본격적으로 용담호 수질자율관리 체제를 준

비해나갈 계획이다.

군은 자율관리에 대해 2년마다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유예를 받아오고 있다.

앞으로도 용담호 수질보전을 균형 최우선 순위로 두고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인공습지 조성,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 하천정비 및 옛도랑 복원 사업 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업분야 우렁이농업, 무농약유기농업, 농기계폐업일회화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또한 민간단체인 용담호 수질개선 주민협의회 및 강 살리기 네트워크에서는 환경대학 운영, 마을별 순회 주민홍보 교육, 캠페인, 도랑살리기운동을 통해 꾸준히 주민들의 환경의식 제고와 자율관리 실천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전준성 군수는 "용담호가 전국 최고의 상수원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으로 자율관리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전복 도민과 충청도민 뿐만 아니라 우리 군 주민도 용담호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황인홍 무주군수는 1일 청 내 방송 월례조회를 통해 설 명절 종합대책 추진, 불우소외계층 보살피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준비 철저, 재정 신속집행, 현장중심 소통행정 추진을 당부했다.

무주군, 청 내 방송 월례조회

황인홍 군수, 설 명절 종합대책·코로나19 예방접종 준비 철저 등 당부

황인홍 무주군수는 1일 청 내 방송 월례조회를 통해 ▲설 명절 종합대책 추진, ▲불우소외계층 보살피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준비 철저, ▲재정 신속집행, ▲현장중심 소통행정 추진을 당부했다.

이번 설 명절에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거리두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황 군수는 방역에 힘을 쏟는 한편,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상황실 운영 등 분야별 대책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고려해 물가안정은 물론, 계수용품의 원산지 표기와 위생상태 점검에도 철저를 기하고 정당한 공직 분위기 정착을 위해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실천을 주문했다.

황인홍 군수는 "추운 날씨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설 연휴를 맞는 어려운 이웃들의 고충은 감히 말로 헤아릴 수 없을 것"이라며 "혼자 사시는 어르

신들이나 소년소녀가장 등의 소외·취약계층들을 잘 살펴 2월도 안전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어 "월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되는 달"이라며 "대응 계획을 잘 수립하고 준비 잘해서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방재정 신속집행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한 황 군수는 "지방재정 신속집행이 경제파급 효과와 더불어 재정운용 선순환 유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황인홍 군수는 "코로나19와 날로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 등 진정한 군민 중심, 현장 중심 행정이 필요한 때"라며 "주민들이 만족하고 체감하는 행정, 무주 발전을 도모하는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2월 한 달을 살아보자"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군, 비대면 관광지 돌레길 활성화 나서

무주군이 이미 조성돼 있는 돌레길에 대한 활성화로 무주만의 비대면 힐링관광명소로 부각시키겠다는 정책을 마련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가족단위 비대면 관광지가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무주군의 돌레길 활성화 방안과 등산로 정비 계획이 주목을 받고 있다.

1일 무주군에 따르면 군이 보유한 구천동 어사길을 비롯해 태권명상숲길, 예향천리 금강변 마실길 제1코스, 예향천리 금강변 마실길 제2코스, 금강삼대길(학교 가는 길) 5개 돌레길에 대한 활성화와 등산로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올 상반기까지 이들 돌레길 코스마다 종합안내판과 방향표지판, 데크, 정자 또는 벤치의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코스별 특색있는 사진 촬영장소(포토존) 등을 추가 설치한다는 계획으로 돌레 길을 찾는 탐방객들과 등산객들이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면서 생활의 여유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원종계 농장에 방역초소 2개 추가 운영

진안군은 1일 지난 1월 29일부터 상수면과 마령면 소재 원종계 농장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강화를 위한 방역초소 2개를 추가로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종계 농장은 육계나 산란계 생산을 위한 종계 농장에 종란을 제공하는 농장으로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양계산업에 매우 큰 타격이 발생을 초래한다.

이에 선제적 방역을 위해 원종계 농장에 방역초소 2개를 추가 설치, 운영하게 된 것이다.

농장 초소는 ▲방문차량·운전자 출입기록 ▲소독필증 확인 및 추가 소독 실시 ▲미허용된 외부인·차량 차단 ▲농장주 방역 점검 등을 주요 역할로 운영하게 된다.

한편 진안군은 기존에 거점소독시설 2개소 및 농장초소 4개소를 운영 중이며, 공동방제단 3개반과 살수차 1대로 취약시설 진입로 소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박찬주 무주군의회 의장, 대한민국 빛날 인물대상 선정

박찬주 무주군의회 의장이 '2021 대한민국을 빛낼 인물·브랜드대상'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수상은 군민을 위해 일편단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온 무주군의회 의장인 박찬주 의장의 노력이 인정된 결과이다.

박찬주 의장은 지난 1월 29일 해럴드경제·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하고 월간 파워코리아가 주관한 2021 대한민국을 빛낼 인물·브랜드대상 지방행정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뛰어난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객만족과 감동을 주는 인물·기업·기관 등을 발굴해 선정하는 상이다.

박찬주 의장은 코로나19 대응행과 지속된 자연재해, 댐 방류 피해 속에서 무주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고군분투 해왔다. 자연재해 복구에 시급한 예비비 집행을 승인하고 사회 각



박찬주 무주군의회 의장은 '2021 대한민국을 빛낼 인물·브랜드대상'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수상은 군민을 위해 일편단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온 무주군의회 의장인 박찬주 의장의 노력이 인정된 결과이다.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